전문대 수시 2학기 18만6,818명 모집

다음달 8일부터 원서 접수 시작

광주·전남 17개 전문대학 등 전국 144개 전문대가 2009학년도 대입 수시 2학기 전형에서 총 18만6천818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다음달 8일부터 학교별로 시작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19일 전국 147개 전문대학 중 수시 2학기 모집을 실시하는 144개 대학의 입학전형계획 주요사항을 집계해 발표했다. 적십자간호대와 우송공업대는 4년제 개편 또는 통합을 추진 중이고, 농협대는 수시 전형을 실시하지 않아 빠졌다.

올해 전문대 수시2 전형 모집인원은 지난해보다 7천102명 늘어난 것으로 2009학년도 전체 모집인원의 61.6%에 해당한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정원 내 모집인원이 줄고 정원 외 모집인원은 반대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형별 모집인원은 정원 내 일반전형이 7만5천411명, 특별전형이 8만3천221명이다. 특별전형 중 고등학교 전공과 연계해 모집하는 연계교육 대상자 전형으로 수시 2 특별전형 총 모집인원의 16.9%에 해당하는 1만4천63명을 뽑는다. 광주의 동강대(242명), 서강정보대(125명), 조선이공대(716명)와 전남의 광양보건대(10명), 순천제일대(20명), 순천청암대(114명) 등 84개 대학이 전문계고 연계전형을 실시한다.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는 124개 대학이 2만8천186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전문대·대학졸업자 전형이 1만5천363명, 기회균형선발제 전형이 8천126명(농어촌출신자 4천72명,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자 4천54명), 재외국민·외국인전형이 2천187명,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전형이 2천187명,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이 323명이다.

전문대 수시2의 주요 전형 요소는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이며, 특히 학생부 반영 비중이 높은 대학이 많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광주의 광주보건대(유아교육과 제외한 3년제 학과), 기독간호대(간호과), 서강정보대(물리치료과·간호과 등), 조선간호대(간호과), 전남의 순천청암대(응급구조과·간호과 등) 등 18개 대학이 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한다.

전문대 수시2 전형은 다음달 8일부터 12월9일까지 대학별로 원서접수 및 전형을 하며, 합격자 발표는 12월 14일, 등록기간은 12월15~16일이틀 간이다. 수시2 모집기간 중에는 대학별로 1~2회 분할 모집을 실시하고 전문대학 간,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간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수시2학기 광주·전남 전문대학 모집인원

■광주

학교명	모집인원(명)			
	일반전형	특별전형	정원 외	계
광주보건대학	692	133	130	955
기독간호대학	55	-	12	67
동강대학	831	689	196	1716
서강정보대학	777	714	151	1642
송원대학	554	557	215	1326
조선간호대학	80	-	30	110
조선이공대학	279	1121	87	1487
소계	3268	3214	821	7303

■전남

학교명	모집인원(명)			
	일반전형	특별전형	정원 외	계
광양보건대학	-	999	290	1289
나주대학	207	294	222	723
동아인재대학	293	536	257	1086
목포과학대학	669	771	365	1805
성화대학	-	866	681	1547
순천제일대학	-	1166	227	1393
순천청암대학	154	882	250	1286
전남과학대학	811	513	330	1654
전남도립대학	303	383	106	792
한영대학	113	456	140	709
소계	2550	6866	2868	12284

"장남·장녀, 비흡연자 우대합니다"

전문대 이색 전형·학과

'장남·장녀, 학부모, 비흡연자 우대합니다.'

2009학년도 전문대학 수시2학기 전형계획에 따르면 지원자의 특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이색 전형들이 많다. 눈에 띄는 학과들도 신설됐다.

전남과학대는 장남·장녀를, 전남도립대 등 4개 학교는 대안학교 출신을 독자기준으로 정했다. 전남과학대와 한영대는 다문화가족이 느는 추세를 반영해 국제결혼 이주자 전형을 마련했다.

경남 김해대는 자녀를 둔 학부모 기준을 따로 뒀으며, 전주기전대는 '약물남용 금지 및 비흡연을 서약한 자'라는 기준을 내걸었다. 이 밖에 자동차나 기계, 전기 등에 관심이 있는 여학생(전남과학대 등 7곳), 간호, 보육, 미용, 조리에 관심 있는 남학생(대구보건대 등 7곳), 벤처기업 창업자 및 종사자(순천제일대 등 5곳), 독도 관련 행사 참가 경험자(대구산업정보대) 등도 있다.

이색 신설학과로는 전남과학대의 골프·프로캐디과와 카오디오과가 있다. 골프·프로캐디과는 졸업생 전원 취업 보장을 당근으로 제시했고, 카오디오과는 사운드 마니아를 위한 국내 최초 학과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전남도립대의 한옥문화산업과는 한옥 및 목조주택, 전통주거문화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상필기자 camus@

본사-유웨이중앙교육, 광주서 대입설명회 광주일보사는 19일 광주시 서구 광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유웨이중앙교육,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와 공동으로 '2009학년도 대학입시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입시설명회에 참가한 학부모들이 유웨이중앙교육 이만기 평가이사의 입시전략을 진지하게 듣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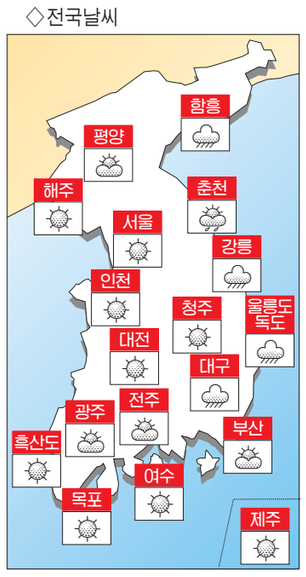
가을 성큼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으며 구름이 많겠다.

8월 20일 (음 7월 20일) 날씨

◇전국날씨

광 주	구름 많음	22~29℃
목 포	구름 조금	22~28℃
여 수	구름 조금	23~29℃
완 도	구름 조금	22~29℃
구 례	구름 많음	22~30℃
해 남	구름 조금	21~30℃
장 흥	구름 조금	21~29℃
고 흥	구름 조금	22~29℃
순 천	구름 많음	21~29℃
영 광	구름 조금	21~29℃
진 도	구름 조금	21~30℃
전 주	구름 많음	22~29℃
남 원	구름 많음	21~29℃
흑산도	구름 조금	22~27℃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1.0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1.0~1.5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1.0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1.0~1.5m

목 포 밀물 04:16 16:38 썰물 09:26 21:41
여 수 밀물 11:07 23:18 썰물 04:50 16:59

▲해뜸 05:56 ▲해짐 19:15 ▲달뜸 20:50 ▲달짐 09:08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1(목)	22(금)	23(토)	24(일)	25(월)	26(화)
날 씨						
최저/최고	21/30	24/28	23/29	23/30	24/31	24/30

장성 백암산서 희귀식물 '애기천마' 발견

장성 백암산 자락에서 희귀식물 '애기천마'〈사진〉가 발견됐다.

'애기천마'는 낙엽수림의 썩은 식물체에 기생해 살아가는 난초과의 부생(腐生)식물로 국내에서는 한라산에서만 서식하고 있다.

이규원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장은 "기후 온난화 영향 등으로 백암산 지역이 애기천마가 살아갈 수 있는 고온다습한 기후적 요건이 만들어진 때문으로 추정된다"며 "앞으로 정밀한 조사를 실시해 희귀식물인 '애기천마'의 서식 실태를 파악하고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

조선대 로스쿨 실낱 희망

예비인가 처분 취소 소송 오늘 선고
탈락 대학 나올 땐 인가 재신청키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조선대가 로스쿨 본인가와 행정소송 선고공판을 앞두고 실낱같은 희망을 이어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8일부터 전남대 등 25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을 대상으로 본인가 현장실사를 진행 중이다. 조선대가 제기한 행정소송(로스쿨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소송) 선고 결과는 20일 나온다.

조선대는 예비인가 대학 중 탈락하는 대학이 나오거나 행정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경우를 대비해 한 달여 전부터 태스크포스를 구성, 향후 계획을 세웠다.

조선대가 제기한 '(광주권역 4개 대학에 대한) 예비인가 처분 취소', '예비인가 효력정지 가처분' 등에 대한 결과는 이미 조선대에 불리하게 나온 상태지만 마지막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

조선대는 지난 18일 김대원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로스쿨 추진기획단'을 꾸렸다. 기획단은 총동창회장, 총동창회 사무총장, 교수평의회 의장, 직원 노조위원장, 기획실장, 법대 학장, 법학과장, 기획조정부실장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우선 본인가에서 탈락하는 예비인가 대학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 로스쿨 인가 신청서를 재작성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커보이지 않는다. 조선대 김재형 법학과장은 "본인가 탈락이나 행정소송 승소에는 크게 무게를 두지 않고 있다"며 "로스쿨 정원에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2~3년 후를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대는 우선 예비인가에서 점수를 크게 잃은 것으로 보이는 평가항목에 집중 투자를 할 예정이다. 여교수와 형법 전공 교수, 외국인 교수를 더 채용해 경쟁력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현재 조선대 법대에는 28명의 교수들이 있다.

또 2009년부터는 현재 200명 정원의 법학과를 법학과(170명)와 글로벌법학과(30명)로 나눠 운영할 예정이다. 글로벌법학과 학생 30명 전원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며 이들은 사법고시, 행정고시, 타 대학 로스쿨 준비에 집중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낮은 사법고시 합격자 비율이 예비인가 탈락에 가장 결정적 이유 중 하나였다.

김재형 법학과장은 "이 밖에 총 정원 증원을 골자로 한 로스쿨법 개정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예비인가 탈락 대학들과 연대해 힘을 모으는 일에도 힘을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

광주과기원 오늘 학위수여식

광주과학기술원은 20일 오후 2시 원내 오룡관 대강당에서 '2008년 하반기 학위수여식'을 갖는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정보통신공학과 아오씨앙 린(Aoxiang Lin) 박사, 기전공학과 아미르 사에드 말릭(Aamir Saeed Malik), 신소재공학과 황대규 박사, 환경공학과 조승희 박사, 생명과학과 정동탁 박사 등 5명의 졸업생이 우수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석사 48명, 박사 31명 등 모두 79명이 학위를 받는다.

이날 학위를 받는 박사들의 재학기간 SCI(Science Citation Index·과학기술논문색인집) 등재 논문편수는 1인당 평균 6.52편에 달했으며, 신소재공학과 황대규 박사의 경우 무려 31편의 SCI급 논문을 게재하고 이중 6편을 주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지난 1997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광주과기원은 이날 학위수여식까지 포함하면 석사 1천832명, 박사 422명 등 모두 2천254명의 고급 과학기술인력을 배출하게 된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